

##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화해(Reconciliation) 신학에 근거한

### 남북한 화해와 협력

안인섭 (총신대 교수)

#### I. 들어가는 글

한국은 1910-1945년까지 지속되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1945년에 해방을 얻었으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 대립의 구도 속에서,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이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20세기 역사의 단면을 상징하는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을 21세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념에 의해서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게 만들었다. 이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회들의 성격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이 고도될 때마다 세계 평화는 위협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교회들이 세계 교회와 함께 신학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단지 한 민족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적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Key Word)는 교회의 “화해자(Reconciler)”됨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남한의 교회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신학적인 토대를 점검한 이후에, 남한의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열정과 헌신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본 고에서는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선택하여 그의 “화해의 신학”에 근거한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칼빈을 택한 일차적인 이유는 개신교 신학(Protestant Theology)에 있어 칼빈이 차지하는 신학적 비중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적어도 칼빈이 제시하는 신학은, 상대적으로 보다 보수적이거나 보다 진보적인 신학적 경향을 초월해서, 개신교 내의 거의 모든 진영들이 경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크게 칼빈에 대한 부분과, 한국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먼저 16세기 칼빈이 제시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남한의 교회가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

<sup>1</sup> In-Sub Ahn(안인섭),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Sou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Issue –A Matter of Reconciliation,” in: *Reshaping Protestantism in a Global Context* (Berlin: Lit Verlag, , 2009), 85-95.

할지 그 광범위한 신학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칼빈의 화해의 신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편 후반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회들이 분단 이후 역사적 전개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고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신학에 근거해서 남한의 교회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안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 II. 칼빈이 제시하는 국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칼빈 신학에 있어 두 개의 핵심적인 기둥은 하나님을 창조자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칼빈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사회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도출하고 있다. 칼빈의 화해의 신학도 이 토대 위에 놓여있다. 또한 남한 교회의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역의 타당성과 방향성 또한 이 이중의 신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1. 교회와 국가

칼빈은 인간 사회를 영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법적 지배를 받는다고 이해하고 있다.<sup>2</sup> 이 두 정부를 칼빈은 교회와 국가라고 지명한다. 물론 칼빈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 또한 사회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칼빈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Soul and Body)의 유비"라는 개념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sup>3</sup>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sup>4</sup>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동일한 원칙에서 칼빈은 육적인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셨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 국가는 국가가 세상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sup>5</sup> 교회는 이 국가에 양심이 된다. 또한 살아있는 인간에게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혼동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명료한 원칙을 제시해 주었다. 칼빈에 의하면 국가는 교회와 서로 "분리(separation)"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구별(distinction)"되어 있다는 것이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국가를 위한 교회의 역할

본질적으로 볼 때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교회는 세속 사회 속에서 정치를 감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

---

<sup>2</sup> *Institutes*. (1559), III.19.15. (= OS. IV, 199-200.). 칼빈의 이 주장은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1536년)부터 최종판(1559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개념이다.

<sup>3</sup>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교회를 위한 신학』(서울: 그리스심, 2009), 299-315.

<sup>4</sup> *Institutes*., 1.15.2. (= OS. III. 174), "Porro hominem constare anima et corpore, extra controversiam esse debet..."

<sup>5</sup> P.C. Holtrop, *The Bolsec controversy on predestination, from 1551 to 1555: The statement of Jerome Bolsec, and the Responses of John Calvin, Theodore Beza, and Other Reformed Theologians* (New York and Ontario: Mellen, 1993), 184-86.

우신 또 다른 기관인 국가가 그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가 사회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주고 건강한 종교적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그 본래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sup>6</sup>

#### 1) 국가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협력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국가가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고유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격려해야 한다. 칼빈은 국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에,<sup>7</sup> 교회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칼빈의 이런 입장은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칼빈에 의하면 위정자들은 공적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임명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권위가 주어진 국가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 2)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협력

칼빈에 의하면 국가는 “사람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sup>9</sup> 신적인 기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이 국가에게 평화와 질서의 유지라는 외적인 역할 이외에 보다 내면적이고 가치를 지향하는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칼빈은 그의 삶의 후기에 갈수록 국가의 이런 기능에 더 많은 강조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강요의 초판에는 국가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국가에게 “건전한 교리와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면적인 임무를 부여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기독교강요의 최종판(1559년)은 이런 국가의 기능을 증보하고 있다.<sup>10</sup>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1</sup>

물론 칼빈이 표현한 액면 그대로의 역할은 16세기의 문맥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본다면 중요한 점은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국가는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더 영예로운” 기관이다.<sup>12</sup> 말하자면 칼빈은 국가는 인간

---

<sup>6</sup> *Ioannis Calvini Opera Exegetica* Vol. XII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pp. 271-272, 274-275. (=「로마서 주석」, 13: 1, 5). 필자는 이처럼 국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순종하며 협력하는 활동을 교회의 “소극적(passive) 정치 참여”라고 정의한 바 있다. Cf.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교회를 위한 신학』, 323-326.

<sup>7</sup> *Institutes*. (1536), 6.C.36. ; *Institutes*. (1559), 4.20.8.

<sup>8</sup> *Institutes*. (1536), 6.C.40., 6.C.43. ; *Institutes*. (1559), 4.20.4, 6.

<sup>9</sup> *Institutes*., 4.20.3. (= OS. V. 473-474.).

<sup>10</sup> *Institutes*., 4.20.2. “... externum Dei cultum fovere et tueri, sanam pietatis doctrinam et Ecclesiae statum defendere...”

<sup>11</sup> *Institutes*, 4.20.9. (= OS V. pp. 479-480.), 4.20.3. (= OS.V. pp. 473-474.).

<sup>12</sup> *Institutes*., 4.20.4. (= OS.V.475).

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위임 받은 신적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거나 더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 III. 칼빈의 화해의 신학

#### 1.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귀한 열매이다. 이 인간이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칼빈의 인간관이 시작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선한 것들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sup>13</sup> 타락한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며,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sup>14</sup> 칼빈에 의하면, 모든 세상이 아담의 죄를 통해 부패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게 되었다.<sup>15</sup>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그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6</sup>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다.<sup>18</sup>

##### 1)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Mediator)

칼빈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찰림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교한다.<sup>19</sup> 칼빈에 의하면 율법의 중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구할 수 있으며, 율법에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한과 죄로 우리를 지배하게 할 권한이 없게 된다.<sup>20</sup>

칼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1</sup>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sup>22</sup>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칼빈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주고, 죄를 씻게 하신다.<sup>24</sup> 칼빈은 우리는 이 세상의 벌레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

<sup>13</sup>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436-437. 이후 다음과 같이 약자로 표시함. *Serm. Ep.*

<sup>14</sup> *Serm. Ep.*, 137.

<sup>15</sup> *Serm. Ep.*, 78.

<sup>16</sup> *Serm. Ep.*, 143.

<sup>17</sup> *Serm. Ep.*, 129, 436-437.

<sup>18</sup> *Serm. Ep.*, 62.

<sup>19</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 (서울: 서로사랑, 2000), 523.

<sup>20</sup> *Ibid.*

<sup>21</sup> *Serm. Ep.*, 38, 427.

<sup>22</sup> *Serm. Ep.*, 119.

<sup>23</sup> *Serm. Ep.*, 46-47.

<sup>24</sup> *Serm. Ep.*, 11.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음을 설교하고 있다.<sup>25</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sup>26</sup>

## 2)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Reconciler)

칼빈에 의하면, 율법이 공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의 중보자가 되셨지만, 자신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만 했다.<sup>27</sup> 칼빈은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낯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분과 화해하도록 하며, 그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sup>30</sup> 칼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설교하고 있다.<sup>31</sup> 더 나아가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소망을 주셨음을 강하게 설교하고 있다.<sup>32</sup>

## 2. 인간과 인간의 화해

칼빈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존재로서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이웃을 향한 태도에 대한 칼빈의 설교는 그의 기독교강요나 주석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강력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 1) 이웃 사랑의 의미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봉헌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고 보았다.<sup>33</sup> 칼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그것은 그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동정하고 이웃의 악행과 연약함을 인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으며, 예수를 쫓아가는 일을 기꺼워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4</sup>

---

<sup>25</sup> *Serm. Ep.*, 690.

<sup>26</sup> *Serm. Ep.*, 139.

<sup>27</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 518, 521.

<sup>28</sup> *Serm. Ep.*, 183.

<sup>29</sup> *Serm. Ep.*, 186.

<sup>30</sup> *Serm. Ep.*, 14.

<sup>31</sup> *Serm. Ep.*, 45.

<sup>32</sup> *Serm. Ep.*, 196.

<sup>33</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338.

<sup>34</sup> *Serm. Ep.*, 595.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 아닌 점을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다. 우리가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5</sup>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칼빈에 의하면 이웃 앞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희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6</sup> 칼빈은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도들에게 주신 멩에라고 보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적용해야 할 교훈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sup>37</sup>

칼빈은 이웃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8</sup> 칼빈은 또한 사람은 서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 관용하지 않으면, 세계의 평화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39</sup>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웃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록 이웃이 될만한 자격이 조금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비난하기만 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근거하여 여전히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교하고 있다.<sup>40</sup>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기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1</sup> 우리는 서로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칼빈은 설교하고 있다.<sup>42</sup> 칼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의 불행을 보면 양심이 찢리고 동정심이 유발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sup>43</sup> 이 연민은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의 걱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sup>44</sup> 더 나아가 칼빈은 우리가 동정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고, 복수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설교하고 있다.<sup>45</sup>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끌어안아야지, 이웃을 경멸해서는 안된다고 설교하고 있다.<sup>46</sup>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용납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47</sup>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 의하면,

<sup>35</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290.

<sup>36</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 278.

<sup>37</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378.

<sup>38</sup> *Serm. Ep.*, 593.

<sup>39</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370.

<sup>40</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291.

<sup>41</sup> *Serm. Ep.*, 593.

<sup>42</sup> *Serm. Ep.*, 561.

<sup>43</sup> *Serm. Ep.*, 480.

<sup>44</sup> *Serm. Ep.*, 482-483.

<sup>45</sup> *Serm. Ep.*, 484.

<sup>46</sup> *Serm. Ep.*, 187-188.

<sup>47</sup> *Serm. Ep.*, 320.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sup>48</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걱정들을 누그러뜨리며 교만을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49</sup>

칼빈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바울의 설명(엡 5:8-11)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과, 이웃과 바르고 명예롭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동정심을 갖고 서로 인내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해 내어 설교하고 있다.<sup>50</sup>

## 2) 이웃과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

칼빈은 타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타자가 비천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형상 때문에 타자를 동정할 수 있다면 그는 경건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칼빈이 역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타자의 상황과는 별도로 그를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sup>52</sup>

위와 같은 칼빈의 사상은 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북쪽의 형제 자매들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북한의 시민들 안에도 분명 하나님이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할 사명이 존재한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 없이 보내주셨듯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쪽의 이웃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sup>53</sup>

## 3) 이웃과 나의 밀접한 상호관계

칼빈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웃의 존재가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이웃을 필요로 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4</sup>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이웃을 보살필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심지어 원수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다.<sup>55</sup>

---

<sup>48</sup> *Serm. Ep.*, 321.

<sup>49</sup> *Serm. Ep.*, 483.

<sup>50</sup> *Serm. Ep.*, 511 - 513.

<sup>51</sup> *Institutes*, 3.7.6.

<sup>52</sup>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교회를 위한 신학』 (서울: 그리심, 2009), 211-212.

<sup>53</sup>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교회를 위한 신학』, 509-510.

<sup>54</sup> *Serm. Ep.*, 402.

<sup>55</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439-440.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웃과 결합시킨 연합을 파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외국인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한 핏줄이며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는 표시가 있다는 것이다.<sup>56</sup>

칼빈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이웃을 괴롭히거나 억압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는 않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약자들을 인내해 주며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7</sup>

또한 칼빈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살 것을 설교하고 있다. 타인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칼빈의 강조점은 이것이다. 교회 안에는 이웃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할 만큼 경멸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내 주변의 이웃이 오히려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분량대로 각각 나누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신다.<sup>59</sup>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 없이는 자기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sup>60</sup>

칼빈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 진다면, 그 부요함은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다 큰 분량의 은혜를 받았다면,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욱 나누어 주어야 한다.<sup>61</sup>

#### 4)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보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다. 칼빈에 의하면 교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삶만을 추구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sup>62</sup>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자주 선행을 베풀지 않고 그에 대한 핑계나 도피로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이웃의 부족한 분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설교하고 있다.<sup>63</sup> 칼빈은 그래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들짐승들이나 맹수보다 더 잔인하다고 강력하게

<sup>56</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441.

<sup>57</sup> *Serm. Ep.*, 341.

<sup>58</sup> *Serm. Ep.*, 339.

<sup>59</sup> *Serm. Ep.*, 336.

<sup>60</sup> *Serm. Ep.*, 339.

<sup>61</sup> *Serm. Ep.*, 401.

<sup>62</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328-329.

<sup>63</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430.



설교하고 있다.<sup>64</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기를 그만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65</sup>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칼빈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칼빈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처럼 잔인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셨다. 칼빈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동정과 연민으로 감동받아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sup>66</sup>

칼빈은 그의 회중을 향해서 계속 강조하며 설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공적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수금하게 하신다는 점이다.<sup>67</sup>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그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봉헌물이요 희생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설교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실로 놀랄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칼빈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다름이 아닌 희생제물이라고까지 설교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설교에 특히 드러나는 강화된 표현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제 사역을 할 때 참으로 진지하고 참된 마음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칼빈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들이 구제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칼빈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다.<sup>68</sup> 이상에서 칼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 본 것처럼, 칼빈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 5) 청지기 사상

칼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간다. 이 제네바의 개혁자는 인간의 신체 기관들이 그 기관 자체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듯이, “경건한 사람도 ... 교우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69</sup>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

<sup>64</sup> Calvin,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하』, 443.

<sup>65</sup> *Serm. Ep.*, 456.

<sup>66</sup> *Serm. Ep.*, 459.

<sup>67</sup> *Serm. Ep.*, 458-459.

<sup>68</sup> *Serm. Ep.*, 459-460.

<sup>69</sup> *Institutes*, 3.7.5.

청지기이며, 우리의 청지기 직책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칼빈은 이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 조건을 “사랑”이라고 했다. 칼빈은 이 사랑이란 타자와 자아의 유익이 일치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은,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청지기 사상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신학적 기반과 실천적 동기를 제공한다. 칼빈에 의하면 남한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은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웃을 돕고 특히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셨다는 것이다.<sup>70</sup>

#### 6) 다른 종파에 대한 태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sup>71</sup> 그리고 출교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교회나 국가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칼빈은 심지어, “터키 사람들, 사라센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했다. 그들에게 정통 기독교 정통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톨릭 사람들이 했던 바와 같이 “불과 물과 다른 일상 요소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칼과 무기로 억박지르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던 것이다.<sup>72</sup> 이처럼 칼빈은 다른 종파에 대해서 폭력과 강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73</sup>

### IV. 남북한 교회의 화해와 협력<sup>74</sup>

#### 1. 한반도 분단 구조 형성기의 남북 교회의 출발(1945-1953)

1945년 한국의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남북한 사회의 발전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해 가면서 그 특성을 형성해 갔는지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남한의 개신교의 시각에서 북한 교회와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인 1945-1950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나면서 한반도의 분단의 구조가 형성되어 갔다. 초창기에 기독교는 좌익과 우익과 중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쪽에서 1945년 10월 10일에 하나의 유일한 정부로서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 점차 반공의

<sup>70</sup>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교회를 위한 신학』 (서울: 그리심, 2009), 508-509.

<sup>71</sup> *Institute* (1st) (1536년), 2.4.27.

<sup>72</sup> *Institute* (1st) (1536), 2.B.28.

<sup>73</sup> 한편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국가가 반대종파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초판의 문장들이 생략 되어 있다.

<sup>74</sup> In-Sub Ahn(안인섭),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Sou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Issue –A Matter of Reconciliation,” in: *Reshaping Protestantism in a Global Context* (Berlin: Lit Verlag, , 2009), 85-95.

기치를 들었던 기독교 우파가 사회를 주도해 갔다.<sup>75</sup> 북한 지역에서는 조선기독교연맹(Korea Christian Federation, KCF)이 1946년에 세워졌는데, 정부의 반대 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이중의 입장을 보였다.<sup>76</sup>

한국전쟁의 기간인 1950-1953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는 극심한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극단적인 적대감을 보이게 되었고 양 교회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남한의 교회는 극단적 반공과 반복한주의로 편향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sup>77</sup> 한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했던 북한의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붕괴되었고, 잔존한 매우 미력한 세력은 강력한 반미, 반남한의 성격을 보이면서 남북 교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 2. 단절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관계 (1953-1969)

전후 복구기간인 1953-1969 기간에도,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의 단절이 - 기독교를 포함한 - 지속되었다.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남한 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시도해도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을 위한 운동은 불가능했다.<sup>78</sup> 이때 남한의 교회는 남한 사회의 강력한 반공주의와 미국 의존성을 주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전후에 북한 사회는 극단적인 반미, 반제의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반기독교운동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때 북한 교회는 국가에 의존적이면서도 선명한 기독교 좌파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북한 교회는 남측의 교회와 교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79</sup>

## 3. 통일을 위한 준비기 (1970-1979)

일반적으로 보아서 1970년대에 남한 사회는 군사 정부 하에서 경제적인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인 부의 불균등한 분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통일 문제는 다른 민주적인 가치보다 2선에 치우쳐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80</sup> 그러나 이 1970년대는 동시에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최고의 가치로 부여한다면 교회에게 언론의 자유와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sup>81</sup> 또한 보수적인 교회들 역시 통일 문제보다는 복음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서 우월감을 보이면서

<sup>75</sup>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208; A.C. Nahm, *Kore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340-343.

<sup>76</sup> 김홍수 편, “기독교민주동맹 성명서,” 『해방후 북한교회사: 연구, 증언, 자료』 (서울: 다산글방, 1992), 457-45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집부,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393-401.

<sup>77</sup> Cf. 김용복, “한국 기독교 경제사상의 전개,” in: 『지구화 시대의 민중의 사회전기: 하나님의 정치 경제와 디아코니아 선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250-268.

<sup>78</sup> 류성민, “해방 후 북한 교회와 남북기독교 교류,” in: 『한국기독교와 역사: 해방 50년 한국교회의 반성과 과제』 vol 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18-119.

<sup>79</sup> 류성민, “해방 후 북한 교회와 남북기독교 교류,” 117-118.

<sup>80</sup> 이만열,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in: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74-380.

<sup>81</sup> *Ibid.*, 374-389.

반공 의식으로 연대되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1970년대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과 더불어, 1970년대에는, 남북 사회와 교회의 상호 입장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sup>82</sup>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7.4 남북공동 성명 이후 남과 북의 정부들은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는 유신 체제가 그것이며 북한 또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역사상 유래 없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조직되어 갔던 것이 그것이다. 이때 헌법상에 반종교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함께 헌법에 명시했다. 한편 사회주의적 기독교인 북한의 기독교연맹은 WCC와의 국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넓혀나가면서 남한의 반정부적 교회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4. 남한의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들과 그들의 북한관 (1980-1988)

1980년대에 남한과 북한의 화해의 국면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한결 발전되었다. 특히 남한의 진보적인 교회들은 남북의 분단이 교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83</sup>

그게 보아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1988 KNCC의 통일 선언이 나오기 까지, 남한의 교회는 대 북한 관점에 있어서 매우 선명하게 이분화 되었다. 보수적인 진영은 기존의 남한교회의 반공의 전통을 이으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 선교 쪽으로 나갔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반외세 반정부적 시각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 교회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었던 북한의 기독교 좌파와 대화하면서 통일을 위한 활동을 긴밀하게 전개했다.

이때 1988년 2월에 역사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나온 최초의 통일 정책 선언이자 이후 통일 운동의 준거가 되는 KNCC의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민주적 참여를 그 골자로 하는 이 선언으로 남한의 진보적 교회와 북한 교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남한 내에서 보수와 진보적인 교회들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통일선언은 남한의 보수적인 교회들을 포용하지는 못했다. 남한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더욱 반공의식을 강화하면서 정부에 밀착하게 되었다.<sup>84</sup>

한편 북한 교회의 통일에 대한 관점 또한 정부의 종교 정책에 의존하게 되었다.<sup>85</sup>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종교 정책이 근원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지도층이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와 레닌 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공산 정부는 교회를 전통적인 종교보다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서양의 국가교회적인 모델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교회는 “금욕적 참여주의(ascetic participationalism)”라고 할 수

---

<sup>82</sup> A.C. Nahm, *Kore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Elizabeth, New Jersey: Hollym, 1996), 541-544.

<sup>83</sup>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과 남북나눔운동,” in: 『남북나눔운동 10년과 한국 교회의 과제』, 2003, 8-9. [<http://sharing.net>].

<sup>84</sup>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377-378.

<sup>85</sup> 류성민, “해방 후 북한 교회와 남북기독교 교류,” 115.

있는데,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930-40년대의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6</sup>

특히 1980년대의 광주 운동에 대해서 인상을 받은 북한 교회는 화해를 위해서 급속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중기부터 WCC는 북한 교회와 전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6년 스위스의 글리온(Glion)에서 북한교회와 WCC가 역사적인 회합을 갖게 된 것이다.<sup>87</sup> 그 배후에는 남북 교회의 교류를 위한 서양 교회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sup>88</sup> 2차(1988)와 3차(1990)의 회합을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sup>89</sup> 결국 1988년 “KNCC 통일선언”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으로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sup>90</sup> 또한 이 통일선언은 남한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통일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끌어 모으면서,<sup>91</sup> 남북의 교회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국 기독교인들간의 협력에 의해서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5. 확대되고 발전된 관계 (1988-1995: 88선언에서 희년 선언까지)

1988년 통일 선언 이후, 1995년 통일희년운동까지, 북한과 남한의 교회의 관계는 활발하게 심화, 발전되었다. 더욱이, 1990년의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서 자극을 받아, 남한의 진보적인 교회들과 대립적이었던 남한의 보수적인 교회들도, 북한 교회와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남북 화해와 관련해서 크게 보아 4가지의 흐름 속에서 발전되어 갔다.

첫째 남한의 진보적인 교회들은 1995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당시 한반도 주변의 환경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감에 따라, 희년은 “민족적 디아코니아”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sup>92</sup> 이것은 군사적인 방법 없이 적대적인 체제들이 통일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남한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88선언에 의해서 각성되면서 통일과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에 “한기총(Christian Council of Korea)”이라는 보수적인 교회들의 자생적이 연합체가 형성되었다.<sup>93</sup> 당시 이 한기총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북한 교회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었다.

셋째는 1993년에, 북한을 향해서 남한 교회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희년 운동은 단지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민족적 디아코니아”를 지향하면서 남한의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교회들에 의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준비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sup>86</sup>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집부, 『북한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67-468.

<sup>87</sup>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집부, 『북한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52.

<sup>88</sup>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과 남북나눔운동,” 13-14. ; 통일위원회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1988년 2월), in: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자료집: 1980년대-2000년』 (서울: KNCC, 2000), 56-68. [<http://www.kncc.or.kr>]; 이만열,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382-385.

<sup>89</sup>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과 남북나눔운동,” 13-14.

<sup>90</sup> 이만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의 역사적 의의,” in: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402-407.

<sup>91</sup> 김병로, “남북 기독교 교류의 실태와 전망,” in: 『남북나눔운동 10년과 한국 교회의 과제』, 2003, 49-55.

<sup>92</sup> 김용복,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 정책,” 『기독교사상』, 1994. 8, 10-22.

<sup>93</sup> “창립취지문,” (1989/1991). [<http://www.cck.or.kr>].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들이 상호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sup>94</sup>

넷째는 북한의 교회 또한 1988년에서 1995년 사이에 변화를 겪었다. 특히 그들의 사역이 공식적인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남한의 교회들과 빈번히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sup>95</sup>

#### 6. 남북 화해를 향한 남북한 4 유형의 교회들의 화해와 협력 (1995년 이후):

남한의 “보수적 교회”, “진보적 교회”,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국가교회”와 “지하교회”

1995년 이후 2000년대인 현재까지의 남북한 교회들의 관계는, 특히 2000년 6월의 역사적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급진적인 발전과 변화를 겪어 왔다. 한가지 특이한 현상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연합해서 대 북한 물질 지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이념적 통일운동에서 실천적 통일운동으로 전이되면서, 사회참여와 복음전도라는 남한 교회의 대 북한 이원적인 관점 모두를 수렴하면서 남한 교회의 연합과, 결국 남북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앞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한국 교회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남한의 보수 교회, 둘째 남한의 진보 교회, 셋째 북한의 사회주의적 국가 교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등이다.<sup>96</sup> 이들 교회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지향할 때 우리는 남북 화해와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교회 유형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의 가정 교회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V.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 1. 독일 통일 과정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

독일의 퀴스터 교수(prof. dr. Volker Kuester)는 독일 통일에 미친 독일 교회의 역할을 분석한 후에, 이에 근거해서 교회가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원칙을 6가지의 모델을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sup>97</sup> 그는 독일의 context가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먼저 독일의 상황에서 도출된 기독교적 원칙들을 해석학적으로 한국 교회에 적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공헌하는 첫째 모델은 교

<sup>94</sup>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과 남북나눔운동,” in: 『남북나눔운동 10년과 한국 교회의 과제』, 2003, 23-26. [<http://sharing.net>].

<sup>95</sup>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집부, 『북한교회사』 (서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478-484 과 506-516.

<sup>96</sup> 필자는 이전에는 세 개의 교회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을 보라. In-Sub Ahn(안인섭),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South) Korea and the Reunification Issue –A Matter of Reconciliation,” in: *Reshaping Protestantism in a Global Context* (Berlin: Lit Verlag, , 2009).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지하 교회를 더 추가하였는데, 비록 학술적으로 그 교세와 신학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는 필자가 탈북이주민 학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얻게 된 것이다.

<sup>97</sup> V. Kuester, “The Role of the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교회와 세계선교」 (총신대학교 교회선교연구소, 2010) vol. 49. 34-36.

회가 선지자적 목소리(prophetic voice)를 높여서 통일 정책(policy making)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창조의 중심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을 위한 매개자(agents)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바울이 정치적인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던 것처럼, 교회가 정치를 초월해서 구제하는 모델이다. 넷째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피난처(shelter)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다섯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변혁을 위한 매개자(agents of the change)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 모델은 교회가 기독교 정치나 기독교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책임감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가 “화해자(Reconciler)”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2. 한국 교회의 역할

### 1) 한국 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개자

칼빈의 교회와 국가론을 한반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평화의 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국가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기관이라면, 교회는 국가가 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협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칼빈의 신학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그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하는 매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볼 때, 한국 교회는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다수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정부가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하기 보다는, 남북간에 냉전적인 대립각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일조한 경향이 적지 않다. 그것은 칼빈이 제시하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역행하는 방향성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적극 협력하면서 그 평화의 매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칼빈의 신학을 존중한다면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다.

### 2) 한국 교회는 인간 존엄성의 보호자

한국 교회는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으로 인해 남과 북 모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기 어려웠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기 어려웠다. 첫째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 그렇지만 이 이슈는 북한 당국과 그나마 쌓아온 기존의 우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소 정략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와 특히 북한 주민들의 가난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인간의 존엄성의 심각한 위협이다.

이 경우 남한과 북한의 당국은, 북한의 주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한의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남북한의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의 증진이라는 그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칼빈의 신학적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한국 교회는 국가가 그 사명을 다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VI. 결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제안 – 기독교통일학회를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할 때,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교회는 국가에 의한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 화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때 모든 이념을 초월하는 “성경적인 통일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긴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성경적 통일론에 근거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 까지 연결되는 “성경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기독교적 통일 이론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1. 기독교통일학회 3대 방향을 통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안

지난 2006년 6월 3일에 출범한 본 기독교통일학회는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여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통일 관련 학회로서 그 선구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3대 방향성인 “이론”과 “실천”과 “교육”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 이론: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통해서 좌와 우를 포괄할 수 있는 성경적 통일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1)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등 신학의 각 분과 별로 신학자들의 네트워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로 “기독교적 통일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2)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학자들이 연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종합적인 이론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3)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 회 적인 개념의 “학술 심포지엄”과, 시사성이 있는 “멘자토크”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공동 연구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각 전공 분야별 주제에 맞춘 단행본들로 구성된 통일학회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시리즈”를 출판함으로써 실제로 성경적인 통일 이론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B. 실천: 성경적 통일관에 근거한 통일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1) 성경적인 통일관을 수립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현재 존재하는 기독교 계통의 통일 관련 학회나 연구소 등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통일을 지향하는 기독교적 연구 기관들과 학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의 사역을 하지 않을 때 그 영향력은 절감되고 말 것이지만, 연합하여 사역할 때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2) 남북한에서 발생하는 시사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성경적인 평화적 통일관에 근거하여 “멘사토크”에서 주제로 다룸으로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3) 현재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독교 통일 NGO 대회”는 이미 성공리에 진행되어 왔다. 다만 현재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대북 NGO의 활동이 급감하고 있지만, 일년에 1차례 (주로 6월) 실시되어 왔던 기독교 통일 NGO 대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정보의 교환과 격려의 차원뿐 아니라 통일 NGO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 C. 교육: 성경적 통일관 교육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실시

(1)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정립되어 가는 성경적인 평화 통일관을 학계와 교계에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목회자 교육, 신학 교육, 새터민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통일관이 주요 교단의 교육국(혹은 교육 진흥국)에 연계되어 각종 주일학교 교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기독교통일학회에서 실제로 기독교적 통일 교육 교재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중고등 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관점의 통일 한국 역사 (혹은 통일 한국 교회사) 등을 저술하고 출판하는 사역이 절실하다.

(4) 중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관점의 통일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저변 인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5)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 지향적인 한국 교회사나, 한국사 교재를 집필하고 출판하여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 2. 기독교통일학회의 발전적인 미래 계획

1) 기독교적 통일관 정립과 그 실천을 위해서 외국인 학자들 (혹은 학회나 연구소)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경우, 직접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 뿐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과 연결할 경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남한의 기독교 학자들뿐 아니라, 북한의 목회자나 신학자(조선그리스도교연맹 소속의), 또 디아

스포라 기독교 한국인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그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